

# “농촌 가치 공존하는 무주로”

### 경쟁력 있는 공직, 소통하는 행정 실현 위한 월례조회 개최

경쟁력 있는 공직, 소통하는 행정을 위한 무주군 6월 월례조회가 3일 무주군청 전통문화의 집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한 분청 및 직속 기관, 사업소와 읍면 직원 등 2백여 명이 참석했다.

황인홍 군수는 “사람과 자연, 농촌의 가치가 공존하는 품격 있는 무주를 만들기 위해 부지런히 뛰고 있지만 취임 1년을 한 달 앞두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라며 “지난 1년에 대한 성과를 면밀히 살펴보고 역점 사업에 대한 추진방향과 비전을 설정해 새롭게 출발해보자”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훈의 달을 맞아 치러지는 행사가 보다 경건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태극기 달기 동참,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들에 대한 예우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줄 것을 강조했다.

또 무주군의회 정례회 준비와 더불어 여름철 재난 및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산골영화제(6.5~9.) 개최 등에도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황인홍 군수는 “공직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정직과 청렴”이라며 “업무는 항상 순수 양심에 따라 청렴



무주군 6월 월례조회가 3일 무주군청 전통문화의 집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함을 명심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군민은 항상 옳다는 마음이 집으로 군민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섬기며 군민행복을 만들어가자”라고 덧붙였다.

한편, 6월 월례조회에 참석한 무주군 공무원들은 ‘직장 동료와의 관계 개선’에 관한 영상물을 시청하고 전자

북도 김은영 법제협력관으로부터 법제 관련 교육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환경위생과 한상현 주무관(기계운영 7급)과 농업지원과 나혜린 주무관(농촌지도사), 농업지원과 이광용 주무관(공무직), 무주읍 김정식 주무관(행정 9급)은 지역발전과 주민행복을 실현하는데 기여한 공로로 우수공무원 표창을 받았다. /무주=전문선 기자

##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상황실 운영

### 진안군, 오는 10월까지

진안군은 여름철 농업재해 예방대책 상황실을 오는 10월까지 운영해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 피해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올 여름은 평년에 비해 강수량이 적고 기온이 높아 폭염을 동반한 무더운 날씨가 지속된다는 기상청의 발표에 따라 상황실 운영을 통해 집중호우, 태풍, 폭염 등으로 인한 농작물

및 가축, 농업시설물에 대한 재해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군은 기상특보 발령 시 비상체제로 전환해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재해 사전예방 활동과 응급복구 및 지원 등 신속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가를 대상으로 태풍·집중호우 등 여름철 재해 유형별 농작물 관리요령, 폭염에 따른 가축사육·시설 관리지도, 폭염대비 농업인 행동요령 등 홍보와 지도활동도 병행 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또한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위하여 총보험금의 95%를 지원하고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최대한 많은 농업인이 가입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에 나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폭염, 집중호우 등 각종 재해에 대비해 농작물 관리요령 및 예방 대책을 적극 홍보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통해 2차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 ‘깨우세요! 우리안의 금연 본능’

### 진안군, 관내 유치원생들과 금연 캠페인

진안군은 지난달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기념해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 홍보캠페인을 펼쳤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금연본능을 깨우자!’라는 슬로건으로 담배의 유해성과 간접흡연의 폐해를 알려 지역사회의 금연 환경 조성하고 금연 실천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관내 유치원생 30여 명은 관공

서 방문을 시작으로 주변 상가와 주민들에게 다양한 금연 홍보활동과 함께 가두캠페인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

김수미 마이콤 유치원장은 “원생들과 함께 금연캠페인을 전개하면서 흡연의 해로움을 알아보는 귀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원생들과 함께 가족과 이웃이 건강해지는 방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건소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변암초등학교 변암 윈드오케스트라는 최근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호남예술제에서 관악중주 부문 금상을 수상했다.

## 변암초 변암윈드오케스트라의 위력

### 제64회 호남예술제 관악중주 금상 수상

변암초등학교(교장 신영희) 변암 윈드오케스트라는 최근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호남예술제에서 관악중주 부문 금상을 수상했다.

중주부원은 관악, 현악, 관현악, 타악 등으로 구성되며 변암초 16명은 관악중주 초등부에 출전했다. 이들은 ‘디즈니 퍼레이드’ 곡을 통해 경쾌하고 통통 튀는 퍼레이드 음악을 선보임으로써 금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신영희 교장은 “장수의 자랑 변암 윈드오케스트라의 멋진 모습에 박수를 쳐주고 싶고 앞으로도 장수를 빛낼 멋진 오케스트라로 더욱 더 성장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변암 윈드오케스트라는 전북도청과 장수군이 연계 운영하는 ‘전북의 별 육성사업’뿐만 아니라, 재경향우회, 변암 주민자치위원회, 노인회등으로부터 후원 및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가운데 농·산촌 벽지지역의 학생오케스트라의 위력을 보이고 있다. /장수=고판호 기자

농촌학교 아이들로 모인 윈드오케스트라로 순수하게 방과후 교육으로만 악기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전교생(동화분교 포함) 68명 중 50명이 단원으로 활동중이다.

대도시에 비해 문화적 혜택을 받기 어려운 시골학교의 한계를 극복하고 음악적 감성을 향유하고 있는 변암 윈드오케스트라는 적극적인 예술교육으로 재능기부 공연을 통한 지역사회공헌, 농촌 지역 예술문화에 힘을 더 해 주고 있었다.

변암 윈드오케스트라는 전북도청과 장수군이 연계 운영하는 ‘전북의 별 육성사업’뿐만 아니라, 재경향우회, 변암 주민자치위원회, 노인회등으로부터 후원 및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가운데 농·산촌 벽지지역의 학생오케스트라의 위력을 보이고 있다. /장수=고판호 기자

## 무주군의회, 정례회 대비 의정자문위원회 회의

무주군의회(의장 유승열)는 최근 무주군의회 상임위원실에서 의정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정자문위원들과 지역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각종 사업에 대한 현장의 소리를 생생하게 청취했다.

특히, 201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와 현장방문을 앞두고 주요 사업에 대한 개선방향과 건의사항 등에 대한 의견

을 제시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정책적인 대안도 함께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광환 의정자문위원장은 “의정자문위원회 회의는 현장의 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올바른 정책적 판단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회의에서 언급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들과 함께 세밀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정책수립에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지역 매아리

### 진안군, 전북대 오프캠퍼스 신청

진안군은 글로벌 인재 양성과 해외 문화체험을 확대하기 위해 전북대 오프캠퍼스 프로그램을 이달 7일까지 신청 접수 받는다.

오프캠퍼스는 국제적 감각과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다재다능한 인재를 요구하고 있는 현대사회에 부응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재학기간 중 방학 또는 한 학기를 국외에서 수학하며 외국어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까지 배울 수 있도록 글로벌 능력을 배양하는 프로그램이다.

신청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전에 진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진안군민 또는 그 자녀로 전북대학교 재학생이어야 한다. 또한 학칙 위반 등으로 처벌된 경력과 기타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국가와 수업 학기에 따라 800~5900천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신청은 전북대학교 국제협력부에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이번 오프캠퍼스 합격자 발표는 6월 중순경이며, 하계방학 및 2학기 기간에 추진된다. 자세한 문의는 진안군청 행정지원과 교육지원팀(063-430-2514), 전북대 국제협력부(063-270-4694)로 하면 된다.

한편 진안사랑장학재단은 2016년부터 전북대와 협력하여 오프캠퍼스를 진행해 현재까지 36명에게 8600만원을 지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진안 백운면 의료활동 '큰 호응'

진안군 백운면(면장 송준섭)은 지난 2일 지역주민 200여 명을 대상으로 대한약침학회 굿닥터스나눔단과 우리 동네 유디치과의 재능기부 의료활동 나눔행사를 가졌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의료활동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주관하는 지자체 농촌재능나눔 활동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백운면은 전국에서 농촌재능나눔 의료지원사업 개최지로 선정된 6개 읍면 중 하나다. 농촌에서 필요로 하는 의료 분야에 대해 재능나눔단에서 해당 농촌으로 찾아와 한의과·치과 분야 의료활동을 지원한다.

이날 50여 명의 굿닥터스와 유디치과의 의료진은 백운면사무소 강당 등에서 개개인별 건강상태에 맞는 한방진료(침술과 약침)와 예방진료, 구강검진을 비롯해 어르신들의 물티슈 및 세척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제대로 된 한약 복용법을 알려 주고 평상시 올바른 치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200여 개의 구강 위생용품과 관리 지침서를 증정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